

강의 평가의 현황과 방향: 변창구 교무처장 인터뷰

서울대학교는 2004년에 이어 2005년 강의 평가 사업 2기를 맞이하여 전공 교과목 강의 평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강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과에 포상을 실시하였고, 2005학년 2학기부터 전공 교과목 강의 평가를 전체 학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강의 평가 사업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대학 본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변창구 교무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 본부의 강의 평가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정책 방향을 듣는다.



강의 평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무처장 변창구 교수(영어영문학과).

이번에 실시한 강의 평가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교무처가 교육의 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각 학부나 대학 단위로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강의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들 현황을 조사하고, 각 학부 및 학과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격려해드리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공 과목 강의 평가를 하고 있는 12개 대학 27개 학부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강의 평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작년에 한 차례 수상을 한 학과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각 학과나 학부에서 내주신 자료에 기초해서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방문 평가도 하고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공 교과목 강의 평가 현황 조사의 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2004년에 이어 2005년 강의 평가 사업 2기를 맞이하여, 강의 평가는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1기 강의 평가 사업은 그 결과를 공지하여 각 학부 및 학과의 강의 평가 의지를 북돋게 한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던 이번 조사는 우수한 강의 평가 기관을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면담으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집하고, 학부 및 학과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학부 및 학과의 강의 평가 자료를 비교하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학부 및 학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기 강의 평가 사업은 개별 강의자 중심으로 강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강의 평가를 희망하는 학부 및 학과들을 대상으로 평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각 학부 및 학과의 강의 평가를 위한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강의 평가를 통한 함의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평가를 희망하는 각 학부 및 학과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자체 평가 점수로 확정하고, 조사위원회에서는 각 평가 단위별로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합산하였습니다. 평가를 희망하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학부 및 학과는 10개 단과대학과 2개 대학원이었고, 이는 전체 27개 학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2기 강의 평가 사업의 원칙은 첫째, 개별 교수에 의한 강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부 및 학과 단위의 강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부 및 학과 방문을 통해 강의 평가 분위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강의 평가의 확산을 위해 우수한 학부 및 학과를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넷째, 학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강의 평가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평가 사업이 교육 개선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강의 내용과 함께 강의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모든 평가가 실제로는 교육과 연구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연구에다가 신경을 쓰시고 교육은 다소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교육이 잘 되어야지 연구가 잘 되는 건데, 당장엔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교육에 조금 소홀히 하신 경우도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잘 되어야지 좋은 연구 자료가 나와서 좋은 연구가 나오겠죠.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평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대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평가라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강의에 대해선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교육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학교 전체가 균질하고 우수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서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자신의 과목의 특색이 반영되지 아니한 평가 문항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염려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가야 되겠죠.

전공 교과목 강의 평가 문항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전공 교과목 강의 평가에서는 최대한으로 문항 수를 줄이자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수업의 질과 관련된 문항을 주로 넣고, 부수적인 건 가능하면 최소화하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제물을 제대로 선생님들이 피드백해주고 있는지, 또는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기는 예전에 교양 교과목의 강의 평가 문항을 참조하고, 예전에 교양 교과목 수강 소감을 만드셨던 그 조사팀에서 의논해서 만드시고, 그걸 부학장님들의 의견을 몇 번에 걸쳐 참조해서 계속 다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강의의 특징이나 강의 양식, 예를 들어 실험 과목이나 세미나 과목 등에 따라 강의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공통 문항 뒤에 첨부해서 강의 평가를 내실화하려고 합니다.

강의 평가를 지속하면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서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하버드대학 같은 외국의 우수 대학들에 비해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의 양이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보완한다면 서울대학교 교육이 좀더 좋아지는,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실시되는 '학사 관리 엄정화 방안'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설득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상적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궁여지책인 경우도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을 좀더 잘 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장치들이었는데,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신문에 난 바에 의하면 프린스턴대학 같은 데서도 A학점은 절대 35% 이상은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강의라든가 성적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서울대학교를 살리는 길인데,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학생들이 학점 취소제나 상대평가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학생들의 의견 중에 귀를 기울일 부분은 참고해야겠지요.

강의 평가 제도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개선을 위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더 학생들과 자신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써 저희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강의를 잘 못하는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

거티브한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각 선생님들이나 학부 및 학과에서 자기 학부 및 학과의 특성과 과목의 특성에 맞는 나름대로의 강의 평가 문항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강의 개선을 해주시게 되면 그때 저희 교무처의 통일된 양식의 강의 평가 문항이 유명무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강의를 되돌아보시고 강의를 좀더 개선해주시고, 그런 노력으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